

경제

노사상생으로 위기 넘자

해 노사협력력이 성장 원동력

2년 무분규 기아차, 거침없는 질주

기아차 광주공장의 성장세가 눈부시다.

지난 2009년 32만3066대의 차량 생산에 그쳤던 광주공장은 2010년 41만1196대, 지난해 48만8154대로 2년 사이에 51.1% 성장했다.

부도 위기에 내몰리며 연간 6만대에 못 미쳤던 1998년과 비교하면 13년 만에 715.4% 증가한 기록적인 생산량이다.

연간 매출도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도 활기차다.

광주공장은 내년부터 올해보다 20% 이상 생산규모를 늘려 연간 62만대의 차량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거듭난다.

2010년 50만대 증산 프로젝트를 성공한 지 2년 만에 12만대를 더 늘려 62만대 생산 체제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같은 성장의 원동력은 노사협력력이 있다.

최근 2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타결로 광주공장은 거침없이 질주했다.

프리미엄 세단 K9를 비롯한 K 시리즈와 광주에서 생산하는 스포티지R 등 R시리즈의 인기에 힘입어 성장세는 '형님'인 현대차를 압도했다.

'19년 연속 파업'이라는 악몽은 잊혀지고, '디자인 기아'를 떠올릴 정도로 혁신을 거듭했다.

쏘울·스포티지R 등이 글로벌시장에서 종합무진 하며 올 1분기에만 국내 11만5000대, 미국 13만8000대, 유럽 7만9000대, 중국 11만대 등 총 63만5000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12.4% 성장했다.

최근 지역 자동차업체에 부는 파업 폭풍이 이같은 성장세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기아차 이삼용 사장과 배재정 노조 지부장 등 노사는 9일 경기도 소하리공장에서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국내 최초로 회사·노조·학회 가 참여하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기아차 제공>

최근 되살아난 파업 악몽에 증산 걱정
화천기공·전남기업 한마음 위기 극복

특히 유럽발 재정 위기로 글로벌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주춤하던 GM·도요타·혼다 등 외국 경쟁사들이 판매를 강화해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파업 악몽이 재현돼 더욱 안타깝다.

그 어느 때보다 노사협력력이 중요한 시기이다.

노사 상생은 21세기 기업이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쌍용차는 지난 4일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임단협을 타결했다.

쌍용차는 임단협 조기타결 배경에 대해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뤄내자는 데 노사가 뜻을 함께

한 것"이라고 밝혔다. 쌍용차는 오는 20일 협력업체가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도 열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들도 노사화합에 앞장서고 있다.

광양에 있는 전남기업은 노조 창립 초기 파업·집회·고소고발 등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었으나 1998년 이후 소통과 교류를 통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노사간 항구적 노사평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비전 선포 등 14년 연속 무교섭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광주 하남산단 내 화천기공은 1977년 노조 설립이후 현재까지 35년간 노사분규 없이 협력적 노사관

계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2009년 경제위기 때 매출액이 40%나 감소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 동결, 정가상여금 지급 유보 등으로 구조조정 없이 위기를 극복했다.

이들 기업은 올해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지역 경제계와 지역 사회도 노사화합을 바라고 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최근 유럽발 재정위기 여파로 인한 세계경제 위축과 광주주의 주력산업인 가전·광산업의 침체로 가뜰이나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노사 갈등과 극단적인 파업 사태는 개별기업은 물론 협력업체, 지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된다"며 "파업을 철저히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여수엑스포 정문 앞에

금호고속 임시매표소

금호터미널은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동안(8월12일까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여수엑스포 정문 앞에 임시매표소를 설치했다고 9일 밝혔다.

임시매표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고속버스는 서울 광일 4회·주말 6회, 부산 2회, 부산 사상 4회, 인천 1회, 통영 3회 운행한다. 직행버스는 광주 14회, 목포·남양 4회, 광양·순천 14회, 대전 8회, 청주 2회, 구례·화양사 6회, 하동 4회, 고흥·녹동 5회 등이다.

인터넷 예약은 고속버스의 경우 www.kobus.co.kr, 직행버스는 www.bustago.or.kr에서 가능하다.

한편, 금호고속은 광주에서 여수엑스포 행사장까지 직통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에서는 오전 7시20분 첫 차를 시작으로 오후 4시40분까지, 여수엑스포 임시매표소에서는 오전 9시10분부터 막차인 오후 10시20분까지 20~70분 간격으로 매일 14회 왕복 운행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우일렉 3도어 냉장고

출시 10주 5천대 판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올해 업계 처음 출시한 대우일렉 3도어 냉장고 '클라세 큐브'가 누적판매 5천대를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출시 이후 10주만이다.

클라세 큐브의 인기에 힘입어 대우일렉의 대용량 냉장고 제품(700L 이상) 판매량은 전년보다 2배 이상 성장했다. 또 클라세 큐브는 올해 대우일렉 전체 대용량 냉장고 제품 판매량 중 30% 이상을 차지하며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 제품은 기존 양문형 냉장고와는 달리 왼쪽 냉동 공간과 함께 오른쪽 냉장 공간이 상·하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연필뉴스

금호타이어 근로자 154명
181억원 퇴직금 청구소송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181억원 규모의 중간정산퇴직금 청구 소송을 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달 25일 강근필 씨 외 153명이 중간정산퇴직금 181억 4345만6532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간정산퇴직금 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9일 공시했다.

강씨 등은 "퇴직금 및 지연 이자를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청구소송 금액은 지난해 말 기준 금호타이어 자기자본대비 2.61% 규모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2010년 워크아웃에 돌입하면서 퇴직금 정산이 중단됐다"면서 "중간정산 신청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소송에 대해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평동산단 근로자 교육센터 개소

광주 평동산단단지내 근로자 무료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센터(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본부장 이현수)는 9일 광주시 광산구 평동로국인투자지역 내 산업단지 근로자 무료 기술교육을 위한 '평동 에듀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광산구 평동로국인투자지역경영자협의회 회장, 김국웅 평동산단협의회 회장, 이종태 한국플라스틱대학 학장, 민형배 광주광역시평동로국인투자지역 근로자 기술교육을 위한 교육센터가 없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원사무소 2층에 165㎡ 규모로 마련됐다. 센터 운영은 산단공이 수요조사과 수강생 모집을, 한국플라스틱대학이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을 맡는다. 또 광산구청은 교육센터 임차비용을 지원한다. 제1기 교육생은 오토 캐디(Auto CAD) 초급과정 15명과 생산·품질·산업안전 과정 15명 등 총 30명이다.

평동산단과 평동로국인투자지역은 입주기업 465개사, 1만1600여명이 근무하는 광주의 대표적 산업단지임에도 그동안 근로자 기술교육을 위한 교육센터가 없었다.

센터는 평동산단 내 산단공 평동지

가짜 사용후기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부당하게 반품을 거부한 유명 연예인의 쇼핑몰이 무더기로 달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백지영·유리씨가 운영하는 쇼핑몰 아이엠유리는 내부 직원이 작성한 글을 소비자의 사용후기로 위장해 인터넷에 게재했다.

가짜 사용후기 올리고 부당하게 반품 거부

연예인 쇼핑몰 6곳 과태료 '철퇴'

지각 등 근무수칙을 위반한 직원은 의무적으로 사용후기 5개를 작성해야 했다. 이런 방식으로 쇼핑몰 직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역시 인기 있는 이유를 알겠어요' 등 칭찬 일색의 글을 997개나 올렸다.

김준희씨가 운영하는 에버주니는 고객 대상 사은품 행사를 하면서 추천을 하지 않고, VIP 회원과 구매금액이 높은 회원은 골라 사은품을 준 사실이 밝혀졌다. 더 지급할 사은품이 없어도 이벤트가 계속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기도 했다.

황혜영씨가 운영하는 아미이는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사용후기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또 유명 연예인의 쇼핑몰이 소비자의 반품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밝혔다.

진재영씨가 운영하는 아우라제이는 닥터 소재의 상품이나 안경 등에 대해 반품을 제한했고, 한에인씨가 운영하는 샵걸스는 제품수령 후 48시간 이내에만 교환이나 반품 요청을 받았다. /연필뉴스

코스피지수	1,836.13 (-22.07)
코스닥지수	495.23 (-1.98)
금리 (국고채 3년)	3.21% (-0.02)
원·달러 환율	1,141.10원 (+3.3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 불이익 강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업체에 대한 제도적 불이익이 강화된다.

계약 발주기관은 앞으로 하도급업자가 자재·장비 제공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계약예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업체는 적격심사에서 감점을 적용하는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감점폭도 3점에서 7점으로 확대된다.

대금체납이 주요 하도급업체와 자재·장비업체 간에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자재·장비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연필뉴스

2008. 7. 1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전문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국가자격증 제도입니다.

◀ 광주광역시 지정 교육기관 : 광주-2008-제001호 ▶

2012년도 야간반 요양보호사교육원 수강생모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 : 성실과 사랑으로 노인을 섬기고자 하는 모두(연점수 학습능력 가능자)

자격증반

- 교육일정 : 2012년 8월 초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18:00-22:50
- 교육비 : 150,000원
- 모집인원 : 40명(★ 교육비 등록순으로 선착순 마감)
 - 사회복지사 : 42시간(실습 8시간 별도)
 - 간호사 : 32시간(실습 8시간 별도)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 42시간(실습 8시간 별도)
- 제출서류
 - 입소신청서 1부(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1부(경력자만 해당)
 - 자격증사본 1부(자격자만 해당)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사진 2매

★교육 후 국가시험에 응시자격 부여★

2012-2 여자신학원(여전도사과정) 모집

지원자격 : 세례교인인 자(학력제한 없음)
수업형태 : 2년(4학기) / 주 3일 / 야간제
교육일시 : 2012년 9월 개강 / 한 학기 15주 / 매주 월·화·목요일 19:00 - 21:55
수강료 : ① 등록금 : 700,000원(한 학기당) ② 입학금 : 50,000원

제출서류 : 입학원서(사진 3cm×4cm 2매) 및 담임교역자추천서 1부 ※ 전형료 : 5,000원

혜택 : ① 매학기 신청자에 한하여 교회봉사장학금 지급 ② 본교 중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학생증 발급 (학생에 준하는 열람 및 대출가능)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비새는 아파트옥상 · 슬라브 주택 · 빌라 · 공장의 희소식

www.phjibung.com

고질적인 슬라브지붕 누수 방수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가?

공정직업
완벽한 시공, 확실한 AS보장
전국최대시공팀 직접운영
시공을 원하시는 분!
출장견적 무료!!

시공전 시공후

국내최초 특허출원번호 69701호

슬라브 방수 강판 시공법 개발

1. 비가 한방울도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는다.
2. 거울면 연료가 최소 30% 정도 절감된다.
3. 여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다.
4. 슬라브 형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방수는 최소 50년 이상이다.
5. 창틀도, 벽체 건조대로 사용할 수 있다.
6. 고추는 땅에서 열리는 것보다 3~4배 더 잘잡힌다.
7. 화학적인 방수제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강판과 목재로만 완벽하게 방수 시공한다.
8. 강판비율이 더러워지지 않는다.
9. 반영구적이다.
10. 슬라브 배수구를 100미터도 다시 돌아서 물빠짐이 원활하다. ※ 상기 특허 등록 및 이미지 등록이 기밀정보이며 법적 고충조치 할 수 있습니다.

단한번의 공사로 40~50년 보장하는 특수 방수 시스템

2년에 우리측사의 온도가 33도였는데 이정도 온도라면 집안에서는 못견딜정도인데 지금은 시원하고 선풍기 없이도 생활해도 배수도 1000리터로 새로 뿜었기 때문에 아무리 폭우가 와도 물빠짐엔 걱정이 없습니다. - 황금군 -

방수를 한 것이 반겨져서 무엇을 할까 고민중인데 방수처리도 완벽하게 되고 슬라브 지붕도 그대로 보존되는 이종재가 있을 뿐 아니라 방수제까지 시공을 했을때 역시 슬라브 지붕새는다는 강판이 최고입니다. - 임봉준 -

슬라브 강판을 한지 4년이 되었는데 색도 안변하고 여름에 들어서 일하고 돌아오면 첫째, 선선하니 시원하고 선풍기 안들어도 되고 겨울에는 외출이 덜하고 연료비도 기름 두 드릴 넣어 놓으면 전보다 3~4달 남으리 연료비가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 성순용 -

한농 칼라강판 지붕개량 문의 061)335-8842 / 010-4024-4005